

#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와 걸프국가의 이민정책: 인도 케랄라인의 아랍에미리트 이주를 중심으로

김경학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걸프 지역의 카팔라제도(kafala system)라는 착취적인 이주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의 대규모 이주노동자는 걸프 국가로 국제노동이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글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지역으로 오랫동안 인도인의 노동이주를 선택해 온 남부 케랄라주의 사례를 통해, 남아시아와 걸프 지역 간 이주자의 이동과 관련한 이주 요인, 초국적 이주산업, 이주자 취약성 등의 상호 연결성에 주목한다. 글의 주요 목적은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국가로의 국제노동이주 과정에 개입된 착취적인 초국적 이주산업이 이주노동자의 '일시성'과 '임의성'을 특성으로 하는 걸프국가의 카팔라제도와 만날 때, 남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층적으로 가중됨을 인도 케랄라 이주자 사례를 통해 규명하는 데에 있다.

주제어 남아시아 이주노동자, 걸프국가, 국제노동이주, 송금, 케랄라, 아랍에미리트 카팔라제도

## I. 들어가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World Cup Qatar 2022)' 개최가 결정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걸프국가 카타르(Qatar)에서 일하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6,500명이 사망했다.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를 위한 7개의 새로운 축구 경기장과 호텔 및 도로 등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약 20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였다. 남아시아 노동자 사망 인원 6,500명에는 인도인 2,711명, 네팔인 1,641명, 방글라데시인 1,018명, 파키스탄인 824명 그리고 스리랑카인 557명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망자의 약 80%가 자연사로 보고되었지만, 월드컵 개막일에 맞춘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작업을 시키는<sup>1</sup> 등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이 주

<sup>1</sup> 카타르 월드컵 경기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남아시아 이주노동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신장 질환에 시달려 신장이식을 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방치한 뒤 사망

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다(Mini, 2021).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남아시아 이주노동자의 피 값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외 언론들의 비난이 쏟아졌다.<sup>2</sup> 이와 동시에 해외 언론들은 걸프국가의 이주자 정책인 ‘카팔라제도(kafala system)’의 반인권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이 제도의 완전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 글은 걸프로 이주하는 남아시아 노동자, 특히 걸프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해 온 인도 케랄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집중적 비난을 받게 된 걸프 지역 국가의 이주 레짐(migration regime) ‘카팔라제도’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걸프 지역 국가의 지난 수십 년의 놀랄 만한 경제발전 성취는 석유산업 성장으로 가능하였다. 석유산업은 세계적인 규모의 노동력을 걸프 지역으로 유인했는데, 특히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력은 걸프 지역 노동시장의 중요 부분을 차지했다. 인도아대륙(Indian subcontinent)과 페르시아의 걸프 지역은 19세기 중반~20세기 초에 걸쳐 영국 제국주의 세력의 진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연계는 19세기 말 이후 현재까지 두 지역 간 국제노동 이주 관계가 지속한 실마리로도 작용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로 많은 수의 노동력을 송출해 온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는 인도아대륙에 진출한 영국 제국주의 식민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1971년에서야 영국 보호령에서 벗어난 아랍에미리트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빈곤과 불평등, 부패, 종족-종교갈등, 근대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유사한 경험과 특성을 공유한다(Riaz, 2021).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남아시아인의 대규모 국제노동이주가 걸프 지역 중심으로 유지되는데, 실업과 빈곤 등이 이런 이주가 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고립, 여권 압수를 통한 이동 제한 등의 폭력적인 이주자 관리정책에도

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불별더위 속에 작업하면서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작업 도중 소변보는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게다가 쉬는 날 없이 작업하면서 하루에 두 끼 식사하는 일이 빈번했다. 카타르의 이런 작업환경이 귀국 후 이주노동자의 신장 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Callaghan, 2018).

<sup>2</sup> Peltola(2022). -> 본문으로

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여전히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가 송출되는 것은 걸프 지역 이주노동이 남아시아 사회에 가져다주는 물질적 혜택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현금은 남아시아 국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외환 보유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이주자 가구의 일상식 해결과 기본교육 및 보건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가구의 빈곤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남아시아 국가와 걸프 지역 간에는 ‘이주와 송금 회랑(migration and remittance corridor)’이 형성되어 남아시아 국가로 막대한 송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 중 걸프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이주자를 송출하고 송금수입액도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글은 걸프 지역 중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인도인의 걸프 지역 이주노동을 선도해 온 인도 케랄라(Kerala)주의 사례를 통해, 남아시아와 걸프 지역 간 이주자 이동과 관련한 이주 요인, 초국적 이주산업, 이주자 취약성 등의 상호 연결성에 주목한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국가로의 국제노동이주 과정에 개입된 착취적 성격의 초국적 이주산업이 걸프 현지에서 이주노동자의 ‘일시성’(temporariness)과 ‘임의성’(precariousness)을 특성으로 하는 카팔라제도와 만나면서,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증충적으로 가중됨을 케랄라 이주자 사례를 통해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송금 규모와 이주민의 이주 경험에 관한 내용은 인도 케랄라와 걸프 지역 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기존 학술 연구와 신문 기사 등의 2차적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II. 걸프국가의 산업화와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의 역사는 걸프의 석유산업 시작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57년부터 1857년 사이에 인도아대륙에서 영향력을 키워 가던 영국 제국주의는 페르시아 걸프 아덴만(Gulf of Aden)으로 진출 야욕을 넓혀 갔다 (Gilbert, 2002). 진출 명분은 페르시아만 지역의 해적들이 영국 상선을 상시로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진지 건설이었다. 방어시설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

노동력은 식민 인도아대륙에서 동원되었다. 청소·보석·철공·목공·선박제작공·석공·구두제작공·재단사·제과공 등의 각종 기술자, 상인·점원·회계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 어업종사자, 군대와 행정업무 종사자들이 인도아대륙에서 걸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Kour, 2005). 대규모 인도인 유입으로 당시 아랍만은 아랍 도시가 아닌 ‘인도의 도시’가 되었다(Jain, 2003).

1900년대 초에 걸프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걸프 지역과 인도아대륙 간의 관계는 석유산업이란 새로운 영역을 통해 유지되면서, 걸프 석유 프로젝트에서 일할 인도아대륙 노동자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영국 제국주의는 걸프 지역에서의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열대 플랜테이션 농장에 필요한 노동자 충원에 사용했던 ‘계약노동제(indentured labour system)<sup>3</sup>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도 노동자들을 걸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20세기 전반기에 걸프 지역 석유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값싸고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인도인이 이주하면서 걸프 지역에 인도인 규모는 점차 커졌다. 대부분 인도인은 석유산업에 필요한 사무직 종사자와 숙련 또는 반숙련 기술자들이었다. 당시 걸프 현지의 아랍인 노동력은 산업 분야 경력 없이 석유산업 종사에 적합하지 않아, 인도 노동력의 걸프 지역으로의 유입은 지속하였다. 당시 노동력 충원에 관한 양허계약을 걸프 지역 국가와 체결한 영국이 인도인 노동력 고용을 선호했던 것은 식민통치 경험이 있는 인도인 다루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해서였다(Wright, 2020).

1910~1940년대에 걸쳐 많은 수의 인도인이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 ‘바레인 석유회사(Bahrain Petroleum Company)’, ‘쿠웨이트 석유회사(Kuwait Oil Company)’의 사무직, 기술직 및 준 기술직 분야의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당시 인도인의 석유회사 고용은 해당 석유회사가 인도 항구인 봄베이(Bombay)나 수랏트(Surat) 등에 인력회사를 두고 필요 노동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

<sup>3</sup> ‘계약노동제’는 1833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인도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유럽인이 운영하는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 충원방식으로 도입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본격 시작되어 1938년에 종료된 ‘계약노동제’로 이주한 노동력은 계약을 근거로 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현지에 자유인으로 체류하였다. 계약노동제 운용은 영국 제국주의의 성장과 영국의 해외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당시 영국 식민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민 각국의 산업과 상업, 특히 플랜테이션 농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들의 많은 부분을 인도에서 징발했다(김경학, 2006).

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많은 수의 인도인이 걸프 지역 진출을 원했던 것은 인도에 비해 걸프 지역의 임금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이 1940년대까지 걸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노동력을 주로 인도에서 충원한 것은 인도인의 걸프 유입을 통해 걸프 지역에서 자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Kumar, 2016).

현대적 의미의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국제이주는 1960년대 말에 소규모로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는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인 석유 수요의 급증으로 석유산업이 부흥하자, 걸프 지역 국가들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에 착수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 간의 ‘제4차 중동전쟁’ 발발에 따라 1973년 걸프국가가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석유 자본으로 부를 축적한 걸프국가들은 석유 자원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추 시설, 파이프라인과 항만 건설, 이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자국 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걸프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동력을 해외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De Bel-Air, 2018).

1970년대 초에 걸프 지역 이주노동력 대부분은 이웃의 가난한 아랍국가, 예컨대 오만·팔레스타인·이집트·수단·요르단·시리아·예멘 출신들이었다. 초기에 이웃 아랍국가 이주노동자가 환영받은 것은 걸프 지역민과 언어·문화·종교 면에서 친연성이 높고, ‘범아랍 국가주의’라는 포괄적 이념 아래 이들 노동력이 걸프 현지인과 국가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걸프 지역 정권들은 이웃 아랍 이주자들이 걸프 지역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를 유발할 급진적인 사회·정치 이념을 걸프 지역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sup>4</sup>를 하게 되었다(Kapiszewski, 2016).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아랍 이주자들에 대한 우려로 아랍 이주자의 노동시장

<sup>4</sup> 걸프국가들은 급진적 이념을 따르는 아랍 이주자들이 중동 국가의 국경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무효로 할 것, 걸프 지역 국가들의 석유발굴에 따른 국가적 부와 지역적 부의 편중 개선을 위해 ‘범아랍 정체성’을 토대로 석유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할까 우려했다. 또한 걸프 지역의 팔레스타인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아랍과 이스라엘 갈등에 연루시키는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점유율이 1975년 72%에서 1985년에는 56%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Russel and Teitelbaum, 1992). 1991년 걸프 전쟁은 이러한 감소세를 추동하여 2000년대 초에는 아랍 이주자의 노동시장 점유율이 32%로 심하게 감소했다. 걸프 지역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요르단·예멘·수단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예멘인 150만 명, 요르단인 100만 명, 팔레스타인인 20만 명, 이집트인 15만 8,000명이 걸프 지역에서 추방되었다(Shaban et al., 2002).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아랍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환으로 생긴 노동시장의 공백을 급속히 대체했다. 걸프 지역에서 남아시아 이주노동자가 환영받은 것은 이들이 아랍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에 임할 준비가 돼 있고, 훨씬 순종적이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아랍인과는 달리 단신으로 이주해 국가 부담이 감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걸프 지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남아시아 이주노동력이 선호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Jain, 2016).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으로의 노동 이주는 석유 수출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걸프 지역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1971년에 신생 독립 국가로 탄생한 방글라데시도 걸프 지역으로의 이주대열에 합류하였다. 싱할라(Singhalese)와 타밀(Tamil) 간의 종족 갈등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던 스리랑카에서도 1970년대 말부터 걸프로 노동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영국군 구르카(Gurkha) 용병 이주와 이웃 나라 인도를 향하던 노동 이주가 대세였던 네팔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걸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2000년대에 걸쳐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수적으로 걸프 지역 노동시장에 지배적 집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의 ‘남아시아화(South Asianization)’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걸프 전쟁 이후 걸프 지역에 남아시아 이주노동력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9년에 인도 전체 해외 이주노동자의 약 97.3%(538,090명), 파키스탄 97.2%(407,077명), 스리랑카 86.8%(226,299명), 방글라데시 79%(650,424명), 네팔 55%(152,272명)의 이주노동자가

걸프 지역 국가들로 이주한 현황(Rajan et al., 2012)은 걸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남아시아화’의 진행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남아시아 이주노동자 규모는 2012년 기준 전체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약 1,250만 명 가운데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런 추세는 ‘남아시아와 걸프 간 이주 회랑’이 확고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 기준 걸프 지역 내 총 2,8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약 60%에 해당하는 1,690만 명이 남아시아 출신이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의 31.5 %는 인도 출신이었다. 남아시아와 걸프 간의 ‘이주 회랑’은 걸프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 간의 ‘송금 회랑’으로 이어졌다. 남아시아 국가에서 걸프 지역으로 노동 이주를 통해 유입되는 송금 수입은 해당 국가의 외환 보유율 제고뿐만 아니라, 이주자 개인적으로도 가족의 생계지원과 건강 및 교육 등의 복지에 송금이 지출되었다(UNDESA, 2017).

2019년 현재 남아시아인 약 3,000만 명이 걸프 지역 국가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걸프 지역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한다. 2019년 전 세계에서 남아시아로 유입되는 송금 총액 1,310억 달러 중 걸프 지역에서만 유입되는 송금 총액은 784억 달러로, 남아시아 전체 송금수입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남아시아 전체 송금 수입을 걸프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송금액 약 40%가 아랍에미리트(21.2%)와 사우디아라비아(18%) 두 개의 나라로부터 유입되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에 유입된 송금은 전체 송금액의 약 1/4에 해당되어, 아랍에미리트는 이 두 국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이주자의 수가 아랍에미리트 전체 국가 인구의 약 27~2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에 아랍에미리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인 셈이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 세계로 송금되는 총액 443억 6,000만 달러 중 185억 2,000만 달러가 인도로 송금됨으로써, 인도는 아랍에미리트 송금의 가장 높은 수혜국에 해당한다(Singh et al., 2019).

### III. 인도인의 걸프 지역 이주: 인도 정부의 이주 정책과 송금

인도 외무성은 2018년 12월 말 현재의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약 3,000만 명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인 디아스포라는 약 1,300만 명의 ‘재외인도인(Non-Resident Indians, 이하 NRIs)’과 약 1,700만 명의 ‘재외인도동포(Persons of Indian Origin, 이하 PIO)’로 구성된다(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8). 재외인도동포(PIO)’의 대부분은 영국 제국주의 시기에 계약노동자로 동남아, 카리브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일대로 떠나 현지에 정착한 인도인이다. ‘재외인도인(NRIs)’은 인도 밖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 시민권자를 지칭한다.<sup>5</sup> 독립 이후 선진국과 걸프 지역 국가에 학업, 취업, 사업 등의 목적으로 장·단기로 해외에 체류하는 인도 시민이 ‘재외인도인’에 해당한다(Ministry of Home Affairs, 2019).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걸프 지역으로의 인도인의 이주는 걸프 지역의 석유개발사업 번창에 따라 현지의 노동자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필요에서 시작됐다. 석유개발 외에도 걸프 지역의 수출 자유와 면세지역 설치에 따른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인도 상인들의 이주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1973년 석유 붐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걸프 지역으로 노동자 중심의 인도인 이주자 수는 1976년 4,000명이었으나, 1981년에 22만 4,000명이 이주하는 등 1980년대 초반 들어 크게 늘었다(Veiner, 2011). 인도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비숙련공, 반숙련공 혹은 숙련공 범주에 속하는 육체노동자였으며 단기 체류 이주자였다. 인도 정부가 1980년대 말 무렵부터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를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이 지역에서 노동하는 대규모 인도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엄청난 ‘오일 달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부터였다. 1990년 ‘걸프 전쟁’으로 걸프 지역에서 유입되던 막대한 오일 달러가 멈추고, 주요 무역상대국이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도의 외환 보유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무렵부터 인도 정부는 걸프 지역 국가에서 노동하는 미숙련 이주자들의 송금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김경화, 2017).

걸프 국가 경제 규모가 수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인도인 이주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현재 걸프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인 인

<sup>5</sup> 고용을 목적으로 인도 외부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 시민, 또는 인도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체류하는 인도 시민, 특정 기간 인도 밖에 체류할 의도로 인도를 벗어난 인도 시민을 ‘재외인도인’으로 지칭한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인도인 약 890만 명이 거주하는 걸프국가들에 가장 많은 수의 ‘재외인도인(NRIs)’이 있다.



표 1 2018년 걸프 지역 국가별 인도인 현황

국가	인도인 인구(명)	전체 인구(100만 명)	인도인 비율(%)
바레인	326,658	1.4	23.3
쿠웨이트	1,029,861	4.1	25.1
오만	781,141	4.4	17.7
카타르	746,550	2.6	28.7
사우디아라비아	2,594,947	32.3	8
아랍에미리트	3,425,144	9.3	36.8

출처: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18).

구는 약 890만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준 숙련 또는 미숙련노동자들이다(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8). 2018년 걸프 지역 내 국가별 인도인의 규모와 해당 국가 전체 인구 대비 인도인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약 340만 명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도인 약 25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의 약 70% 이상은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 단순기술 영역의 열악한 작업조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인도인 이주노동자의 약 3분의 2는 남성이며, 이들의 과반수가 생산 및 노동 직종 또는 서비스 부문의 미숙련 직종에 종사한다. 인도인 여성 이주자 대다수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여성은 간호사, 접대 관련 직종, 가사노동분야에 종사한다. 이들 대다수의 인도인 이주노동자는 사설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걸프국가로 이주하였다(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8).

걸프 지역은 아라비아해를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인도와 가까워서 인도 이주노동자와 모국과의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걸프 지역 인도 이주민들의 모국에 대한 송금과 투자는 인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인도와 비교해 걸프 지역에 일자리가 많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였다. 인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송금 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며(World Bank, 2015), 특히 걸프 지역 송금은 인도의 전체 해외송금 수입액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인도 정부는 걸프 지역 이주자 송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2는 2013~2015년 사이의 걸프 지역 국가별 인도인의 본국으로의 송금 현황을 보여 준다.

표 2 2013~2015년 걸프 지역 인도인의 본국 송금 현황

(단위: 100만 USD)

	2015	2014	2013
바레인	1.3	1.3	1.3
쿠웨이트	4.7	4.7	4.7
오만	3.3	3.1	3.5
카타르	4.3	4.1	4
사우디아라비아	11.3	10.7	10.8
아랍에미리트	13.7	12.8	12.6
걸프 전체	38.6	36.7	35.8
송금수입액	68.9	70.4	70.0
걸프 비중	56	52	52

출처: World Bank(2015).

걸프 경제가 2013~2015년 기간은 유가 하락으로 다소 경기 침체기였음에도, 걸프 지역의 인도인 송금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 국제노동이주가 송금 수입 외에 인도 내 높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이주자의 외환 송금은 인도의 국제수지 완화 효과가 있었다. 1991년 인도의 외환 위기에 걸프 지역 이주민의 외화 송금의 힘이 확인되면서, 인도 정부의 걸프 지역 자국 노동자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인도는 2018년 한해에 786억 달러의 송금을 받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외송금 수입국이었다. 표 3이 보여 주듯, 2018년 인도 송금수입액 전체의 61.64%는 걸프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만 송금된 액수는 인도 전체 송금 수입의 23.57%에 해당하여,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이주노동에 관한 한 인도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걸프 지역에서 인도로 유입되는 송금은 외환 수입과 인도의 GDP를 높이는 것 외에, 개별 이주자가족의 일상생활 수준의 향상과 가족의 건강과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Molavi, 2020).

한편 걸프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인도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송금 편의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을 걸프 지역 해당 국가와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 갔다. 인도 정부는 현지의 인도 국적자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노동 협약을 마련해 자국의 노동자가 관련된 문제

표 3 인도의 해외 국가별 송금 수입 비율 현황

송금국가	송금비율(%)	비고
아랍에미리트	23.57	인도 송금수입액의 61.64%
사우디아라비아	14.84	
쿠웨이트	8.49	
오만	7.32	
카타르	5.52	
바레인	1.9	
미국	16.2	인도 송금수입액의 38.36%
영국	5	
캐나다	3.7	
호주	2.98	
기타	10.48	

출처: Molavi(2020).

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 정부는 외무부 산하 ‘해외 인도인 담당국(Overseas Indians Divisions)’의 주관으로 걸프 전쟁 기간에 쿠웨이트에 있던 인도인 15만 명을 철수시킨 바 있으며, 철수하는 인도인 노동자의 안전과 전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인도로의 송금액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였다(Lall, 2001).

걸프 지역을 향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은 이주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을 원하는 인도인은 인도 내 민간 이주용역회사로부터 걸프 지역 현지의 노동계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가짜 고용계약서를 통한 고액의 이주 대행 비용을 착취당하기 일쑤였다. 이주 대행 회사는 이주희망자에게 걸프 지역 현지에서 약 1~2년 노동해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고비용을 요구하였다. 1983년에 인도 정부는 걸프 지역 노동 이주자 송출업체의 과도한 착취를 금하기 위해, 공인된 이주대행사를 통해서만 노동 이주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은 저학력자와 여성 이주자의 이주와 관련해 외무부 산하 ‘이민보호관(the Protector of Emigration)’의 이민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 장치도 포함했다(Torpey, 2000). 걸프

지역 노동자의 보호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에 ‘최저추천임금(Minimum Referral Wages)’을 걸프 지역 국가들에 적용하여, 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력과 가정부 및 청소부로 일하는 인도인의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하였다(Challagalla, 2018).<sup>6</sup>

## IV. 인도 케랄라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이주

### 1. 케랄라에서 걸프로의 이주 물결

인도 케랄라 해외 이주자의 약 90%는 걸프 지역으로 이주하며, 이들의 약 45%는 아랍에미리트를 향하였다(Zachariah et al., 2011). 케랄라는 인도 남서부의 말라바르(Malabar)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주로서, 서부 해안은 아라비아해를 두고 걸프 지역과 마주하고 있다. 케랄라의 해외 무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의 교류의 역사는 매우 깊다. 페르시아 걸프 지역으로 케랄라인이 이주한 것은 초기 무역 루트를 통해서였다. 부족한 산업적 기반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낮은 개인별 토지 보유율은 케랄라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따른 케랄라인의 해외 이주 열망은 매우 높았다. 20세기 초 플랜테이션 농장이 운영되던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던 일부 케랄라인은 현지에서 말단 직원이나 콜리(Coolie)로 일했다(Joseph, 1988). 1970년대 이후 케랄라인의 걸프 지역 이주가 활발하였으며, 케랄라 지역 중 걸프 지역으로 이주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은 흔히 ‘걸프 포켓(Gulf pockets)’<sup>7</sup>으로 불렸다.

<sup>6</sup> 걸프 지역 입장에서든 경제 분야 외에도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인도인 노동력은 지역 운영에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다. 인도 정부에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매우 중요하듯이, 대규모 인도인 노동력이 걸프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면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걸프 지역도 마찬가지다. 걸프 지역 국가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액 등을 고려하면 인도 정부의 견해에서 현지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방관할 수만 없다. 인도 정부가 노동자의 다양한 이주 조건과 현지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 주지만, 카팔라제도 등의 현지 이민정책 때문에 이런 노력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Pethiyagoda, 2017).

<sup>7</sup> ‘걸프 포켓’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케랄라의 트리수르(Trissur), 말라뿌람(Malappuram), 트리만

2011년 케랄라의 인구밀도는 860명(1km<sup>2</sup>당)으로, 인도 전체 평균 368명(1km<sup>2</sup>당)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교육지수, 식자율, 남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건강지수, 여성권한지수 등을 포함한 케랄라의 ‘인적자원개발지수(HDI)’는 인도 최상위 수준이었다. 또한 ‘케랄라 발전모델(Kerala Model of Development)’(Jeffrey, 1993)은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인 ‘판짜야뜨(Panchayat)’를 유지해 경제성장만이 아닌 대안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널리 세계에 알려졌다.<sup>8</sup> 케랄라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때문에 케랄라 남성들이 걸프로 대대적인 이주를 시작한 시기는 걸프 지역의 유가 급등으로 건설 붐이 일어난 1973년 무렵부터였다. 케랄라와 걸프 지역 간의 ‘이주 회랑’ 형성은 케랄라의 만성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매우 주효하였다. 산업성장률이나 1인당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치보다 크게 낮았던 케랄라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말 무렵부터 인도 평균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회복세는 케랄라의 자체적 생산성 향상보다는 1980년대 이후 걸프국가로 대규모로 떠난 이주노동자의 송금 수입의 급증에서 비롯되었다(Zachariah et al., 1999).

1970년대에 시작된 케랄라와 걸프 지역 간 이주는 대략 세 번에 걸친 대규모의 ‘이주 물결’로 설명된다. 첫 번째 케랄라인의 대규모 걸프로의 이주는 1970년대 초반 걸프 지역 석유산업의 부흥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한 산업개발과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의 필요로 발생했다. 두 번째 이주 물결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지지한 아랍 이주자의 추방으로 생긴 노동력 공백을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으로의 이주 발생과 관련된다. 1993년에 걸프 지역에만 60만 명 이상의 케랄라 이주민이 급증했고, 1998년에는 약 130만 명의 케랄라 이주자가 걸프 지역에 체류하였다(Zachariah et al., 2003). 2004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케랄

드룸(Truvandrum), 콜람(Kollam), 에르나콜람(Ernakulam) 등인데, 이들 지역은 일찍이 걸프 지역의 이주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들 초기 이주자들은 지역 출신 후발 이주자들의 걸프 이주 과정에 사회적 네트워크로 작용하였다. 2011년 실시된 ‘이주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말라뿌람은 케랄라 전체 이주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이주가 발생해 여전히 가장 많은 이주자를 배출한 지역이었다(Zachariah et al., 2011).

<sup>8</sup> 케랄라는 높은 인적자원개발지수 유지에도 오랜 기간 소득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케랄라 발전모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김찬완, 2015).

라인 수는 170만 명으로, 케랄라 전체 해외 이주자 인구의 약 89%에 해당하였다(Zachariah et al., 2004). 2000년대 이후 약 10여 년에 걸친 유가 상승과 두바이와 아부다비 중심의 전 지구화와 글로벌 도시화 과정의 촉진으로, 걸프 지역에 국제무역, 산업과 서비스 분야 및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가 있었다.

세 번째 이주 물결은 미숙련 이주노동자의 이주와 함께 행정, 회계, 기술 전문직, 엔지니어 등의 고학력 이주자의 비율이 다소 늘어났다는 점에서 앞선 이주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케랄라 이주자 대부분은 여전히 비전문직이나 미숙련 이주노동자였다(Venier, 2011). ‘2018년 케랄라이주조사(Kerala Migration Survey 2018)’에 따르면, 케랄라인 약 210만 명이 걸프국가들로 이주했으며, 2018년 걸프 지역 국가에서 케랄라로 유입된 송금규모는 케랄라주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도 전체 송금수입액의 약 19%에 해당하였다(Rajan and Zachariah, 2019).

## 2. 걸프로의 이주 과정과 이주 요인

높은 인구밀도와 실업률 및 농지 부족으로 케랄라의 청장년들은 걸프 지역의 노동이 자산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국제이주를 선택했다. 케랄라에서 이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부자거나 연로하고 병든 사람이며, 청장년 남성은 아랍에미리트(두바이)로 이주를 하나의 통과외례로 여겼다(박정석, 2007). 1960~1970년대 초의 걸프 지역의 이주민 규제는 엄격하지 않았지만, 점차 걸프국가들은 다양한 이주 규제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로의 이주를 위해서는<sup>9</sup> 합법적 비자와 아랍에미리트 고용주가 보낸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외무부 산하 ‘이민보호관’의 이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계약서 확보 등을 포함해 모든 이주 절차를 민간 이주알선업체나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이주희

<sup>9</sup> 걸프 현지에서 지인이 사들인 비자를 이용하거나 전문 인력확보를 위해 걸프 회사의 인도 자회사를 통해 걸프에 입국하는 방식 등 이민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이민 절차를 맡긴다.

망자는 걸프 지역의 노동자 수입의 1~2년분 정도의 액수를 업체에 줘야 한다.<sup>10</sup> 저임금 단순기술자로 이주하는 이주희망자 대부분은 친척과 친구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집이나 땅을 저당잡고 지역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저당물이 없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처럼 심각한 채무의 부담을 안고 이주노동자의 걸프에서의 삶은 시작한다(Rajan and Prakash, 2009).

케랄라와 아랍에미리트 현지 이민중개업자들의 ‘농간’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주 비용으로 큰 부채를 안고 이주 생활이 시작됐지만, 이주자는 현지에서 계약서에 적시된 노동조건보다 훨씬 힘든 노동을 해야 하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노동계약과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자의 높은 채무는 케랄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국제이주에 개입된 다단계 초국적 이주대행업자들의 개입에서 비롯된다. 케랄라 출신 이주자들이 알선업체에 속아 고비용을 내거나, 현지에서 계약된 일을 못 하게 된 사연은 다음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sup>11</sup>

고용계약서와 비자비용 등의 서류 준비에 10만 루피를 요구해 빚을 내서 냈다. 나는 당시 대행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랐다. 나는 두바이에 간 후에서야 6만 루피면 이주 비용으로 충분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후회하면 뭐 하겠는가. 나는 돈을 이미 낸 뒤였으니.(Jose, 용접공)

급여 등의 조건이 좋은 회사에 직접 고용시켜 준다고 9만 5,000루피라는 큰돈을 요구해 주었는데, 나중에 두바이에 가서 알고 보니 내가 속아서 엄청나게 큰 비용을 냈음을 알았다. 알선업체가 나에게 그 정도 액수를 요구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다. 이름 있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다고 해서 주란 대로 주었다. 두바이에서 배관공으로 일하기로 하고 갔는데, 나는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해보지도 못했다. 사기당한 것이다.(Nikhil, 배관공)

<sup>10</sup> 인도 이민법은 국내의 이주대행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행 비용이 해외에서 수행할 노동자의 직업과 숙련성 정도에 따라 차등하게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행업자가 현장에서 지정 액수보다 훨씬 비싼 이주 비용을 요구한다.

<sup>11</sup> 두 인터뷰 인용문은 케랄라에서 두바이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귀환한 사례를 제시한 Buckley (2012: 254-255)에서 발췌하였다.



두바이에 건설 부문 노동자로 이주하였던 이들 두 명의 케탈라 이주자는 사기에 가까운 정도의 고비용을 지불했다. 아랍에미르를 포함한 걸프국가의 ‘카팔라제도’는 기술 숙련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자에게 이주 전에 걸프국가 시민이나 현지 보증인 확보를 요구한다. 고용계약서와 보증인 확보 과정에 개입된 케탈라 시골 마을부터 두바이 현지까지 연결된 다단계 민간 인력송출회사의 비용 착취 구조는 카팔라제도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고도의 채무와 사기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케탈라에서 두바이로 이주하고자 하는 케탈라인의 열망은 두바이 귀환자의 경제적 성공 신화와 관련된다(장용규, 2006; 박정석, 2007). 특히 두바이에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로 생활했던 케탈라의 이주 귀환자들은 고향에 주택과 땅을 사들여, 두바이 이주가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확신과 환상을 이주희망자에게 강하게 심어 준다. 일부 귀환이주자는 상징적 자산인 집과 땅의 소유를 남성성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이들 귀환자는 도로변의 좋은 위치의 서양식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남성적 지위를 드러낸다(박정석, 2007: 233-234).

두바이에서 유입되는 이주자의 현금은 딸이나 여자 형제의 결혼에 필수적인 폐물 구매와 신부지참금으로 이용되는 등 의례적 맥락에서 이주자 가족의 과시적 소비가 두드러진다(Osella and Osella, 2004). 아랍에미르의 케탈라 출신 이주 남성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 조사 연구(Waight, 2020)는 누이나 딸의 결혼에 사용할 신부지참금의 핵심인 ‘금(gold)’ 구매비용 마련이 케탈라 남성들의 아랍에미르 이주의 주요 목적이고, 여성 가족원을 위한 금 구매를 위한 자원 마련이 남성성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생계와 의례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걸프 지역으로 이주한 케탈라인의 송금은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이용된다. 송금받는 가족은 일상생활 비용, 가구 등 고급소비재 구매, 토지자산 구매, 가옥 신·개축 비용 등으로 현금을 소비한다.

한편 걸프 지역 케탈라 이주자의 송금은 케탈라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케탈라로 송금되는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지만, 1998년 케탈라주 GDP의 약 9.3%가 송금액이었으나(Zachariah et al., 1999), 2000년에는 GDP의 20%로 크게 높아졌다(Kannan and Hari, 2002). 케탈라 소재 ‘발전연구센터(The

Center of Development Studies)’와 ‘이주와 발전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2021년 공동 조사에 따르면, 케탈라주의 2020년 GDP의 36.3%가 아랍에미리트를 핵심으로 하는 걸프 지역에서 유입된 송금이였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2020년대에 걸친 약 20년 사이의 걸프 지역 이주민들의 송금이 케탈라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에서 36.3%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전체 케탈라주 경제에서 걸프 지역 송금은 필수적인 중요 자산이 되었다(Rajan and Arokkiaraj, 2022).

그러나 걸프 지역으로의 노동 이주가 남아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늘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걸프 전쟁,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주노동자 개인과 이주자 송출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글로벌 외부요인들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로 본국 송환을 당하였다. 이는 이주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케탈라주의 경제적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케탈라에서 아랍에미리트로의 이주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이주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두바이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요 건설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두바이 케탈라 이주자들은 빈손으로 귀국하였다.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2006~2009년 3년 동안 석공(石工)으로 일했지만, 당시 금융위기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케탈라 출신 비노드(Vinod)의 이주 실패 사례는 이를 잘 보여 준다.<sup>12</sup>

2009년에 국제금융위기로 건설 현장이 문을 닫고 두바이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시점은 그간 3년 동안 이주 비용으로 발생한 빚을 갚고 이제 막 돈을 저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때였다. 케탈라 지역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릴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 3년이 지난 후 2년만 더 일했더라도, 나는 돈을 좀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두바이에서 막상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는 두바이에 다시 가고 싶다. 보다시피 나는 이제 케탈라에서 오토릭샤(삼륜차)를 몰면서 겨우 생계를 잇고 있다. 이력저력 살 수 있겠지. 언젠가는 좋아질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지.(Vinod, 석공)

<sup>12</sup> Buckley(2012: 254).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주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손으로 돌아온 석공 비노드처럼,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걸프 지역이 전면 봉쇄되면서, 수많은 케랄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귀환을 강요받았다. 케랄라 주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인도 중앙 정부에 대해 걸프 지역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랄라 이주자의 귀국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케랄라 이주자가 귀환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위생 시설이 없는 집단 노동자 숙소에 머물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적지 않은 케랄라 이주자들이 감염병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를 피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귀환할 방법도 없이 거리에 미아 상태에 놓여 있었다(Rajan and Oommen,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케랄라로 귀국한 귀환이주자 약 90만 명의 95%는 걸프 지역에서 송환되었다. 케랄라 출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용계약 해지와 함께 귀국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다. 회사는 밀린 임금지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귀국행 항공료 지급만을 조건으로 귀국을 강요하였다. 케랄라 이주자가 임금체불상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강제 송환되자, 케랄라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케랄라주 전체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전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걸프 지역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임금체불 상태에서 ‘빈손 귀국’을 강요했다(Piper and Foley, 2021). 사실상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카팔라제도의 임의적인 고용계약 해지라는 취약성에 노출됨으로써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체류자격 박탈과 함께 귀국을 강요받았다.<sup>13</sup>

## V. 아랍에미리트의 이민자 정책과 걸프국가의 ‘카팔라제도’

19세기~20세기 초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불과했다. 1950~1970년대 사이 석유산업의 시작과 부흥으로 아랍

<sup>13</sup> Akhil(2021).

에미리트는 현대적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Abdulla, 2006). 두바이는 인프라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면세 구역 조성, 다양한 이주자 유입과 글로벌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글로벌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 사회에는 건설업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는 고립되고 주변적 존재로서 글로벌 노동환경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절대다수의 이주자들이 체류한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산업화와 글로벌 도시화 과정에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남아시아 출신 국제 노동이주자의 불가시적인 다양한 역할이 있었다.

이주노동력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이주자의 증가로 걸프 지역 국가,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인구수에서 자국민의 비주류화가 진행되어, 2018년에는 이주자가 국가 전체 인구의 약 91%를 상회하였다(GLMM, 2018).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가들은 이러한 인구 불균형을 자국민 실업률 증가와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및 걸프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sup>14</sup>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자국민과 이주자 간의 분리와 배제정책을 토대로 하여, 자국민과 이주민은 주종 관계에 놓여 있다(엄익란, 2016). 아랍에미리트는 이주노동자를 도시 외곽의 노동자 캠프에서 생활하게 하고,<sup>15</sup> 이주자의 동선과 직장이동을 통제하며 체류 기간 종료와 함께 귀환시킴으로써 이주민을 자국민과 분리·배제시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불균형 문제와 자국민의 높은 실업률 해결을 위해 1990년대 이후 노동력의 자국민화 정책인 ‘에미리트화(Emiratisation)’를 추진했다. 은행 등 국영기업의 일정 비율에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고, 대학졸업자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정책을 펼치는 등 자국민 인력의 취업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Zachariah et al., 2002). 외국인 인구조절을 위해 미숙련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발급

<sup>14</sup> 걸프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에 90만 명의 불법노동자를 추방했고, 오만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를 자국민의 33% 이하로 감소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엄익란, 2016: 3).

<sup>15</sup> 걸프 지역의 대부분 이주노동자는 건설공사 현장이나 소규모 서비스 업체, 가정의 돌봄 노동 영역에서 단순노동자로 종사한다. 두바이의 높은 물가 때문에, 두바이의 케랄라 이주자는 일정한 금액에 송금하기 위해 집단거주를 하였다. 두바이 외곽지역에 허름한 건물을 불법 개조해 거실을 합판으로 막아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살면서 집세를 분담하여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사적 공간이란 없었다(장용규, 2006: 195-196).

을 제한하는 등 일부 조치를 시행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시되었다. 자국민의 노동기술력이 뒤떨어지는데다,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기꺼이 노동할 준비가 된 에미리트 국적자가 거의 없어 이주노동자의 입국 규제는 쉽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두바이 정부는 석유 자원의 한시성을 인식하고 석유 경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경제의 다변화를 시도하면서(Davidson, 2009), 자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금융 부문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경제 다변화 핵심의 한 가지였던 다양한 도시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국제 부동산 시장을 통한 국제적 자본 기반의 두바이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대규모 건설 붐을 수반하는 메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국내 건설노동력 부족으로, 석공, 목수, 엔지니어 등 준숙련 분야와 단순노동력을 해외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노동자 수요의 급증을 해결할 초국적 건설노동력으로 인도 케랄라인이 두바이로 대거 유입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만 7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대거 이주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케랄라 출신으로서 두바이의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Buckley, 2012).

일부 고학력의 준 숙련 또는 고숙련 케랄라 이주자가 아랍에미리트 사회의 소방대원, 안전 기술자, 간호사, 영업관리인, 사무직 등에 종사했으나(Venier, 2011), 케랄라 이주자 대부분은 건설 현장과 제조업 및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노동시장은 자국민을 외국인과 분리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높은 임금에 안전이 보장된 공적 영역에 자국민을 고용하고, 저임금 서비스 분야와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설업 직종 등 대부분의 민간 부문에 외국인 이주자를 고용하였다. 아랍에미리트 '2011년 노동력 서베이(Labour Force Survey, 2011)'에 따르면, 가게 점원의 85.3%가 외국인 주자이며, 건설업과 기능직 노동력의 99%를 외국인 이주자가 맡고 있다. 국가 전체의 외국인 이주자 약 70%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 민간 부문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석유와 가스산업, 은행과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고 임금을 받는 서구 출신 고숙련 전문직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는 저임금을 받는 미숙련 이주자들이다. 아랍에미리트로 이주한 외국인이 출신 국가와 직종에 따라 어느 정도

위계화되어 있는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는 저소득층을 형성한다(엄익란, 2016).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은 학력과 숙련도에 무관하게 현지 국가의 ‘카팔라제도’<sup>16</sup>라는 이주 레짐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고용규제를 받는다. ‘후견인제도’ 또는 ‘보증인제도’에 해당하는 카팔라제도는 걸프국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 책임 및 권한을 사실상 자국민에 위임한 것에 다름이 없다(Dito, 2015). 모든 걸프 지역 국가에는 자국민의 특권 유지와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주자 같은 주변 집단의 무기력화가 작동한다. 소수의 왕족이 법과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고 자국민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카팔라제도는 국가가 정치적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시민의 사회·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국 시민에게 경제적 부와 이주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해 준다. 카팔라제도는 국가와 시민 간의 사회적 계약 성립의 토대가 되며, 카팔라제도의 이런 역할은 현재까지 지속한다(Qadri, 2020: 79).

카팔라제도는 권력을 위임받은 아랍에미리트 시민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불법행위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해 놓은 이주노동력 통제체계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획득과 이주자의 거취 등은 전적으로 보증인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고용주이자 보증인인 현지 시민과 피고용인인 이주자 간에는 통제와 착취를 통해 구현되는 권력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다. 사실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국가의 대행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Longva, 1997). 현지 시민인 보증인이 노동자의 입국과 비자 갱신, 고용주의 변경과 귀환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이주자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함으로써 이주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 이런

<sup>16</sup> 카팔라(kafala) 용어는 ‘보호자’ 또는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랍어 ‘Ka Fa La’에서 유래하였다. 베두인족이 낯선 방문자에게 거처와 음식 및 호의를 베푸는 전통에서 그 용어가 유래하였다(Kakande, 2015).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오늘날 걸프국가에서 통용되는 카팔라제도는 돌봄과 자비 및 호의성이라는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달리, 이주자를 극도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주자 관리제도를 대변하게 되었다(Dito, 2015).

권력관계로 인해 이주자는 학대와 임금 체불의 악조건 속에서 노동하게 되는데, 이런 학대와 착취는 카팔라제도의 구조적 폭력의 표현이다(Gardner, 2010).

카팔라제도는 이주자를 ‘불안정’과 ‘일시성’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주자의 시민적 권리 접근을 완전히 통제한다. 이주노동자가 보증인에 의한 여권 압수 등 다양한 어려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동선의 통제라는 공간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주가 언제든지 해고하고 송환시킬 수 있어 이주노동자는 일시성과 불안정성이란 고용의 시간적 차원에도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걸프 지역 이주자의 영구정착이 허용되지 않는 일시성은 필연적으로 이주자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게 된다. 케랄라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자는 걸프 지역 현지에 가족 동반 없이 단신으로 이주해 체류할 수밖에 없다.<sup>17</sup> 소위 보증인 또는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카팔라제도에 따른 고용계약에 이주자의 잠정 체류 조건은 필수적이다.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의 201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시된 바 있다. 위반 내용에는 이주노동자 이주 과정의 모든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컨대 채용 시 과도한 비용 요구,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계약보다 적은 급여지급과 직종에 배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작업조건, 여권 압수로 이주자의 이동 자유 박탈, 무급 초과 근무 강요, 건강을 위협하는 거주와 생활 여건, 법적 구제를 위한 접근 불가능이 포함되었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8).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약 85~89%에 해당하는 이주민은 카팔라제도 방침으로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단기 체류자들이다. 이주민 가운데 구조적 폭력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주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라는

<sup>17</sup> 가족 결합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현지 법률에 따르면, 이주자의 월 급여가 4,000디르함(Dirham) 이상이거나 주거 제공이 되면 3,000디르함 이상임을 증명해야 가족 결합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준 숙련 또는 미숙련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케랄라 이주자는 법률이 정한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Janardhan, 2011). 또한, 임금이 기준선에 근접하였다 해도 비싼 생활비와 물가 때문에 가족 단위 생활이 어렵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주요 이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결합은 이주자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아랍에미리트와 걸프국가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은 고용주의 개인 집에서 일하는 특성 때문에, 고용주의 이주여성에 대한 비인권적 착취가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가사노동분야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혹한 가사노동에 시달린다(Amnesty International, 2019).

가사노동자로 종사할 여성 이주노동자의 입국에는 카팔라제도에 따라 보증인이 필요한데 대체로 고용주가 보증인이 된다. 고용주는 여성의 여권 압수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등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가사노동자는 ‘가사 노예’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은 초과 노동, 저 임금, 성 착취, 강간, 고문 등에 흔히 노출되어, 다양한 범죄와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가사노동자는 집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루 노동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병가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고용주는 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거부나 수면시간 감축 및 폐쇄공간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한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사 이주노동자의 기존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 외에 주거지의 방역이나 청결 강화 등의 부가적 일을 수행하거나, 인원수 감축으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일선에서 경험하였다. 특히 가사노동자가 감염되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 격리됨으로써 목숨을 위협받는 사례가 많았다(Aoun, 2020).

가사 이주여성의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는 자국 여성의 걸프국가 가사노동분야의 이주를 제한해 왔다. 인도는 1983년 도입된 인도 이민법에 따라 만 30세 이상 여성만이 걸프 지역 가사 분야 이주노동자로 이주할 수 있게 하였다.<sup>18</sup> 인도 이민법에 따라 30세 이상의 이주 희망 여성은 ‘No Objection Certificate’에 남편이나 여성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Wright, 2018). 아랍에미리트의 인도 케랄라 출신 여성 가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통해 가사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분석

<sup>18</sup>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으로 두는 것은 30세 이상의 여성이 재생산노동 즉 출산의 임무를 다한 여성으로 간주하고 이런 과업을 마친 상태로는 해외 노동 이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반영되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늘 남성 보호자에게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 연구(Pattadath, 2020)는 비자 보증인인 고용주가 가사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며, 계약해지를 위한 비자 취소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출국시킬 권한을 갖는 카팔라제도의 구조적 폭력을 규명한 바 있다. 팻타다쓰(Pattadath, 2020)는 고용주의 여권 압수가 개인 가사노동자의 자유와 이동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되어 여성 노동자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신체, 성적 학대와 과잉업무부담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케탈라 여성 가사 이주노동자의 탈출 시도가 따른다. 이런 탈출 시도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결국 탈출 이주여성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sup>19</sup> 탈출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은 자신의 고용주와 직접 상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늘 자신을 압도하고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며 임금과 여권을 쥐고 있는 고용주의 자비에만 기대하는 것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할 때야 비로소 이주여성은 탈출을 시도한다.

아랍에미리트의 ‘노동력 자국민화’ 정책은 자국 여성을 고임금에 안전한 노동시장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자본계급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 여성 가사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가사노동자는 에미리트 가족에게는 단순히 일상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에미리트 여성의 노동 현장 참여를 위한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민의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해 아랍어와 종교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엄익란, 2020). 그러나 에미리트 가정에서 이제는 보육까지 책임지는 가사노동자라는 비아랍 이주 여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국 아동이 아랍어를 구사하는 등 정상적인 에미리트 국적자로 사회화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에미리트 가정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카팔라제도로 가정이란 사적 공간에 묶여 있는 여성 가사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아랍에미리트가 추구하는 경제부흥과 국가 정체성 강화라는 국가 정책에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sup>19</sup> 여권 없이 도망친 케탈라 출신 여성은 즉시 불법 이민자가 된다. 대부분 탈출한 가사노동자들은 여권 원본 상실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마침내 복제 여권 만드는 사람의 역할에 기대게 된다(Pattadath, 2018). 탈출한 이주여성들은 비정규적인 시간제 일을 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숙소에서 또 다른 형태의 학대를 경험한다.

## VI. 맺으며

초국적 국제노동 이주는 전 세계적인 이주 현상이며 이주노동자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은 이주 대상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걸프국가 내 이주노동자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의 특성은 카팔라제도라는 구조적인 폭력이 동반된 이주민 정책으로 선명히 드러난다. 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걸프 지역을 향하고 있다. 이들의 본국으로의 송금은 해당 국가와 공동체 및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걸프 지역에는 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 단순기술자와 저임금 이주노동자가 해당 국가 인구수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는 인도인 이주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다른 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 등 잠정적 체류 성격의 이주노동자들이 국가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들의 경제적 기여도도 매우 높다.

케탈라에서 걸프 지역으로의 인도인 이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케탈라 마을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아랍에미리트 현지까지 연결된 초국적 인력송출의 복잡한 층위로 형성된 이주산업의 착취적 구조 때문에 과도한 이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 상태에 놓인 채로 걸프 지역의 노동이주자 생활을 시작한다. 이주자들은 걸프국가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린 대가인 송금을 통해 가족과의 초국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국제적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주자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강력한 외부조건의 형성으로, 카팔라제도라는 걸프국가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의적 해고와 강제송환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걸프 지역 국가들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계약종료 이전에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등의 카팔라제도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주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할 수 있는 여권 압수 등의 핵심적 내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Abraham, 2018). 이주민의 분리와 배제를 통해 자국민이 이주민 통제기구로 사용돼 온 카팔라제도의 핵심적 사항을 개선하거나 이를 철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걸프국가의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절대적으로 적지 않았다. 최근 들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의 회복과 경제성장 창출을 위해 숙련 전문가 이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Al Jazeera, 2022). 전문직에 종사할 외국인인 아랍에미리트 시민 후견인이 필요 없고 10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골든 비자’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sup>20</sup> 이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전문직 이주자는 카팔라제도의 구속을 더는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랍에미리트 경제모델이 경제 다변화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직을 중심으로 고수입을 창출하는 외국인 이주민 유입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여전히 남아시아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노무직 이주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카팔라제도라는 착취적인 성격의 이민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낮은 신분과 가난한 계급이 상호교차적으로 만들어 낸 취약한 남아시아 이주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프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남아시아 국가 내부적 문제가 있다. 게다가 걸프국가의 노동시장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수직 이분화되어 있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조건의 민간영역에 종사할 남아시아의 대규모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의 걸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이주자 송금이 국가와 가족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를 지속시킨다.

남아시아 이주노동자 가운데 특히 여성 가사노동자는 작업조건과 인신 확대 등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의 이주민 정책인 카팔라제도 하에서 가사 이주노동자의 젠더와 인종 및 비 시민성의 요인이 상호교차적으로 작동하여 여성 이주자의 취약성은 증폭된다. 착취적 상황에서도 여성 가사 이주

<sup>20</sup> 엄익란(2016)은 아랍에미리트 경제모델이 경제 다변화와 지식기반 경제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전문직을 중심으로 고수입을 창출하는 외국인 이주민 유입되어 이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계층 형성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한 바 있다.

노동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자국 여성 노동력 참여를 통한 자본 축적에 필수적인 노동력이자 에미리트 가정 내 아랍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투고일: 2022년 10월 7일 | 심사일: 2022년 10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 김경학. 2006. 『국제이주와 인도인 디아스포라』. 집문당.
- \_\_\_\_\_. 2017. “초국가적 시대의 인도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과 전문직 디아스포라의 성격.” 윤인진 편.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실태』. 북코리아.
- 김찬완. 2015. “케랄라 뻘짜야프와 여성권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케랄라 모델’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21권 1호, 27-56.
- 박정석. 2007. “케랄라의 귀환이주자: 이주과정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김경학 편. 『글로벌시대의 인도인 디아스포라』. 경인문화사.
- 엄익란. 2016. “아랍에미리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국민과 이주민 간 관계변화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6권 3호, 1-24.
- 장용규. 2006. “재외인도인의 연망과 공동체 형성: 두바이체류 재외케랄라인의 사적연망을 통해 본 NRK공동체 재생산.” 김경학 편. 『인도인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경인문화사.
- Abdulla, A. 2006. “Dubai: The Journey of an Arabcity from Localism to Cosmopolitanism.” *Al-Mustaqbal al-Arabi* 323, 57-94.
- Buckley, M. 2012. “From Kerala to Dubai and Back Again: Construction migrant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Geoforum* 43, 250-259.
- Davidson, C. M. 2009. “The United Arab Emirates: Prospects for Political Reform.”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5(2), 117-127.
- De Bel-Air, F. 2018. “Asian Migration to the Gulf Stat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Mehdi Chowdhury and Irudaya Rajan, eds. *South Asian Migration in the Gulf*.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Dito, M. 2015. “Kafala: Foundations of Migrant Exclusion in GCC Labour Markets.”

- In A. Khalaf, O. Alshehabi, and A. Hanieh, eds. *Transit States: labour, migration & citizenship in the Gulf*. London: Pluto Press.
- Gardner, A. 2010. "Engulfed: Indian Gust Workers, Bahraini Citizens, and the Structural Violence of the Kafala System." In N. De Genova, and U. M. Peutz, eds. *The deportation regime: Sovereignty, Space, and the Freedom of Movemen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Gilbert, E. 2002. "Coastal East Africa and the Western Indian Ocean: Long-distance, Trade, Empire, Migration, and Regional Unity, 1750-1970." *The History Teacher* 36(1), 7-34.
- Jain, C. 2003. "Indian Diaspora in Yemen." *Journal of Indian Ocean Studies* 11(1), 99-111.
- \_\_\_\_\_. 2016. "In Search of EL Dorado: Indian Labour Migration to Gulf countries." in C. Jain ed. *South Asian Migration to Gulf Countries: History, Policies and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 Janardhan, N. 2011. *Boom amid Gloom: The Spirit of Possibility in the 21st Century Gulf*. Reading: Ithaca Press.
- Jeffrey, R. 1993. *Politics, Women and Well-being: How Kerala Became a Model*.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Joseph, K. V. 1988.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erala*. Delhi: Mittal Publications.
- Kakande, Y. 2015. *Slave States: The Practics of Kafala in the Gulf Arab Region*. UK: Zero Books.
- Kannan, K. P. and K. S. Hari. 2002. "Kerala's Gulf Connection: Emigration, Remittances and Their Macroeconomic Impact, 1972-2000." *Working Paper* 336,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 Kapiszewski, A. 2016. "Arab verse Asian Migrant Workers in the GCC Countries." In Prakash C. Jain and Ginu Zacharia Oommen, eds. *South Asian Migration to Gulf Countries: History, Policies and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 Kour, Z. H. 2005. *The History of Aden, 1839-1872*. London: Frank Cass.
- Kumar, K. 2016. "Indian Labour in the Gulf: Issues of Migration and the British Empire." In C. Jain, ed. *South Asian Migration to Gulf Countries: History, Policies and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 Lall, M. C. 2001. *India's Missed Opportunity: India's Relationship with the NRIs*. Burlington: Ashgate.
- Longva, A. N. 1997. *Walls Built on Sand: Migration, Exclusion, and Society in Kuwait*. USA: Westview Press.
- Osella, F. and C. Osella. 2004. "Migration and the Commoditisation of Ritual: Sacrifice, Spectacle and Contestations in Kerala, India." In F. Osella, and K. Gardner, eds. *Migration, Modernity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South Asia*. New Delhi: Sage.
- Pattadath, B. 2018. "Making Sense of Legality: Everyday Resistance and Survival Tactics by Undocumented Indian Female Domestic Workers in UAE." In J. Nowak, P. Birke, and M. Dutta, eds. *Worker's Movement and Strik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20. "The Blurred Boundaries of Migration: Transnational Flows of Women Domestic Workers from Kerala to UAE." *Social Change* 50(1), 95-108.
- Qadri, M. 2020. "The UAE's Kafala System: Harmless Or Human Trafficking." In M. Page and J. Vittori, eds. *Dubai's Role in Facilitating Corruption and Global Illicit Financial Flow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Rajan S. I. and H. Arokkiaraj. 2022. "Return Migration from the Gulf Region to India Amidst COVID-19." In A. Triandafyllidou, ed. *Migration and Pandemics*. Toronto: Springer.
- Rajan S. I. and D. Narayana, 2012. "The Financial Crisis in the Gulf and Its Impact on South Asian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S. I. Rajan, ed. *Indian Migration Report 2012: Global Financial Crisis, Migration and Remittances*. New Delhi: Routledge.
- Rajan, S. I. and B. A. Prakash. 2009. "Migration and Development Linkages Re-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Paper presented at the 3r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Athens, Greece, Nov. 2-3.
- Rajan, S. I. and K. C. Zachariah. 2019. "Emigration and Remittances: New Evidence from the Kerala Migration Survey 2018." *Working Paper* 483.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 Riaz, Ali. 2021. *Religion and Politics in South Asia*. London: Routledge.
- Russel, S. S. and M. S. Teitelbaum. 199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 Trade.” *Discussion Paper no. 160*. Washington D.C.: World Bank.
- Shaban, R. A., R. Assaad, and S. Al-Qudsi. 2002. “Employment Experienc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 Djavad Salehi-Ishfahani, ed. *Labour and Human Capital in the Middle East Studies of Markets and Household Behavior*. Reading and Cairo: Ithaca Press.
- Torpey, J. 2000.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Surveillance, Citizenship and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New York: UN.
- Veiner, P. 2011.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itiatives in the UAE among Kerala Emigrants.” In S. I. Rajan and M. Percot, eds. *Dynamics of Indian Migration*. Abingdon: Routledge.
- Wright, A. 2018. “‘The Immoral Traffic in Women’: Regulating Indian Emigration to the Persian Gulf.” In R. Jones and Md. Azmeary eds. *South Asia and Beyond*.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_\_\_\_\_. 2020. “Making Kin From Gold: Dowry, Gender, and Indian Labor Migration to the Gulf.” *Cultural Anthropology* 35(3), 435-461.
- Zachariah, K. C., E. T. Mathew, and S. I. Rajan. 1999. “Impact of Migration on Kerala’s Economy and Society.” *Working Paper 297*.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 \_\_\_\_\_. 2003. in K. C. Zachariah, ed. *Dynamics of Migration in Kerala: Dimensions, Differentials and Consequences*. Hyderabad: Oriental Longman Private Limited.
- Zachariah, K. C. and S. I. Rajan. 2004. “Gulf Revisited: Economic Consequences of Emigration from Kerala.” *Working Paper 363*.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 \_\_\_\_\_. 2011. “Economic and Social Dynamics of Migration in Kerala, 1998-2003: Analysis of Panel Data.” In S. Irudaya Rajan, ed. *Dynamics of Indian Migration*. Abingdon: Routledge.
- Zachariah, K. C., Prakash, B. A. and S. I. Rajan. 2002. *Gulf Migration Study: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Kerala Emigrant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Working Paper No. 326). Thiruvananthapuram: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 인터넷 자료

- 엄익란. 2020. “전환기의 아랍에미리트, 어떤 젊은 세대를 원하는가?” SNUAC 다양성 +Asia 3월(16호). <http://diverseasia.snu.ac.kr/?p=3695>(검색일: 2022. 1. 24.).
- Abraham, R. 2018. “Getting Qatar Ready for 2022: Reforms in Labor Immigration Policy and India’s Options.” MEI@75, <https://www.mei.edu/publications/qatar-labor-immigration-policy-and-india>(검색일: 2022. 4. 12.).
- Akhil, A.C. 2021. “How Migrants in the Gulf are Fighting Discrimination during the Pandemic.” <https://www.opendemocracy.net/en/openindia/how-migrants-gulf-are-fighting-discrimination-during-pandemic/>(검색일: 2022. 1. 2.).
- Al Jazeera. 2022. “UAE Hopes to Attract Skilled Professionals with New Visa Rules.” <https://www.aljazeera.com/news/2022/10/4/uae-rolls-out-new-visa-rules>(검색일: 2022. 11. 5.).
- Amnesty International. 2019. “Their House is My Prison.” Exploitation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Lebanon.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8/0022/2019/en/>(검색일: 2022. 2. 27.).
- Aoun, R. 2020. “COVID-19 Impact on Female Migrant Domestic Workers in the Middle East.” GBV AoR Helpdesk. <https://www.alnap.org/help-library/covid-19-impact-on-female-migrant-domestic-workers-in-the-middle-east>(검색일: 2022. 2. 14.).
- Callaghan, L. 2021. “Qatar World Cup Returned Nepali Workers Reportedly Developing Chronic Kidney Disease Following Construction of Stadiums in Dangerous Heat Conditions.”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15, Nov.<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qatar-2022-world-cup-nepali-workers-returning-from-building-stadiums-reportedly-developing-chronic-kidney-disease-one-fifth-dialysis-patients-in-nepal-are-gulf-returnees/>(검색일: 2022. 3. 3.).
- Challagalla, S. 2018. “The Diaspora and India’s Growth Story.”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ssue Briefs and Special Reports. <https://www.orfonline.org/research/the-diaspora-and-indias-growth-story/>(검색일: 2022. 1. 14.).
- GLMM(Global Labour Markets and Migration). 2018.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Low-Income Migrant Workers in the Hospitality and Constuction Sectors in the United Arab Emitates.” <https://cadmus.eui.eu/>

- bitstream/handle/1814/65986/Report\_GLMM02.pdf(검색일: 2022. 10. 28.).
- Mini, 2021. "Qatar World Cup: In 10 Years, 2711 Migrant Workers from India Have Died." CNBC TV18. <https://www.cnbc.tv18.com/india/qatar-world-cup-in-10-years-2711-migrant-workers-from-india-have-died-8398271.htm>(검색일: 2022. 4. 12.).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2018. "Population of Overseas Indians." [https://web.archive.org/web/20181225053337/http://mea.gov.in/error.htm?aspxerrorpath=%2Fimages%2Fattach%2FNRIs-and-PIOs\\_1.pdf](https://web.archive.org/web/20181225053337/http://mea.gov.in/error.htm?aspxerrorpath=%2Fimages%2Fattach%2FNRIs-and-PIOs_1.pdf)(검색일: 2021. 12. 22.).
- Molavi, A. 2020. "Economic Contraction Across the Gulf Chokes the Flow of Remittances to South Asia."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May 26. <https://agsiw.org/economic-contraction-across-the-gulf-chokes-the-flow-of-remittances-to-south-asia/>(검색일: 2022. 1. 14.).
- Ministry of Home Affairs. 2019. National Portal of India. <https://www.mha.gov.in/banner/national-portal-india>(검색일: 2022. 1. 13.).
- Piper, N. and L. Foley. 2021. "The Other Pandemic for Migrant Workers: Wage Theft." *Open Democracy* January 12, <https://www.opendemocracy.net/en/pandemic-border/other-pandemic-migrant-workers-wage-theft/>(검색일: 2022. 1. 22.).
- Peltola, L. 2022. "Qatar 2022: A world Cup Built on Blood."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https://blogs.cuit.columbia.edu/rightsviews/2021/06/29/qatar-2022-a-world-cup-built-on-blood/>(검색일: 2022. 3. 18.).
- Pethiyagoda, K. 2017. "Supporting Indian Workers in the Gulf: What Delhi Can Do."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research/supporting-indian-workers-in-the-gulf-what-delhi-can-do/>(검색일: 2022. 1. 23.).
- Rajan, S. I. and G. Z. Oommen. 2020. "The South Asian-Gulf Migrant Crisis." *The Hindu* July 29.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the-south-asian-gulf-migrant-crisis/article32215146.ece>(검색일: 2022. 1. 27.).
- Singh, P. and Arimbra, M.A. 2019. "Indians in the Gulf: The Other Side of the Story." Indian Migration Now. <https://medium.com/@indiamigration/indians-in-the-gulf-the-other-side-of-the-story-2870995eb748>(검색일: 2022. 1. 24.).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8. UPR. <https://www.upr-info.org/en/review/United-Arab-Emirates/Session-29-January-2018>(검색일: 2022. 11. 8.).

World Bank. 2015. "Bilateral Remittance Matrix 2013-5." Migration remittances Data. Sep. 24, 2015. <http://www.worldbank.org/en/topic/migrationremittances/diasporaissues/brief/migration-remittance-data>(검색일: 2022. 1. 15.).

## Abstract

## Migration of South Asians to the Gulf Region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Gulf Countries: Focused on the Migration of Kerala in India to the United Arab Emirates

Kyunghak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exploitative migrant regime called the ‘kafala system’ in the Gulf region, large-scale migrant workers in South Asia continue to migrate to the Gulf countries. South Asian countries are very aware of the importance of large-scale remittances of their migrant workers from the Gulf region in alleviating economic crises such as poverty and high unemployment. In fact, India is a country that sends the most migrants to the Gulf region and has the largest number of remittances among South Asian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connectedness of motives for migration, the transnational migration industry, and the vulnerability of migrants related to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the Gulf region through the case of the southern state of Kerala, which has long been leading the migrant labor of Indians to the Gulf region including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mplification of the socioeconomic vulnerability of South Asian migrants in the Gulf region through the case of Keralites in UAE, when the exploitative transnational migration industry involved in the migration processes of South Asians is combined with the ‘kafala system’ characterized by ‘temporariness’ and ‘precariousness’ of migrants in the Gulf region.

**Keywords** | South Asian migrant worker, Gulf countries,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United Arab Emirates (UAE), kafala system